

무감각한 사회를 깨우는 희망의 메시지

무관심의 시대

알렉산더 버트야니 지음·김현정 옮김

“인생에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냉혹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험의 기억은 미래에도 그를 따라다니며 쉽게 협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고통과 냉혹함이 항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 현재는 제한성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결정의 장소다.”

오늘의 시대를 가지 상실의 시대, 물질만능의 시대 등 다양한 수사로 규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무관심의 시대’도 오늘의 사회를 지칭한다. 과거에 비해 풍족해졌지만 빈부 격차와 양극화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실존적 공허’라는 말로 현대사회를 규정한다. 현대인들은 삶 자체의 즐거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 이런 상황에서 결핍과 무관심이 증대된다. 물질의 풍요는 실존의 빈곤은 물론 고립감, 좌절감, 무관심을 낳는다.

그렇다면 왜 냉정해지기를 강요받는가. 그것은 이기적 삶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 빅터 프랭클을 연구소 창립자이자 이사인 알렉산더 버트야니는 모든 순간은 의



무관심의 시대

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펴낸 ‘무관심의 시대’는 무감각한 사회를 깨우기 위한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책은 독일 아마존 및 슈피겔 베스트셀

리에 올라 인기를 끌었다.

먼저, 알렉산더 버트야니의 메시지를 떠올리기 전에 최악의 성악가라 혹평을 받았던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내가 노래를 못 불렀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안 불렀다고 할 수 없겠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말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물론 삶에는 생각보다 많은 고통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그 고통이 인생에 있어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빅터 프랭클의 “우리가 삶의 사실들에 응답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미완의 사실들 앞에 서게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맥락이다.

“우리의 자아상과 인간상, 세계상을 들



기다림이 아닌 숭선수범의 자세, 저마다의 능력을 신뢰하고 연합할 때 세상은 온전해지며 자신의 삶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일 뿐만 아니라 변화와 성숙,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열쇠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닌, 숭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유이기도 하다.

“다들 그렇지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등과 같은 무관심의 정당화는 필요치 않다. 저마다의 능력을 신뢰하고 세상과 연합할 때 온전해지며 자신의 삶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저자는 누구나 세상을 위해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곧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나무생각·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사랑의 욕구 =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저자 폴 디엘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애정과 존중의 욕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욕구가 발달의 근본적인 추진력이며,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반응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해간다고 설명한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사랑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랑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성숙시키는 동시에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바람의아이들·1만7000원〉

▲IMF, 불평등에 맞서다 = 책은 국제통화기금(IMF) 소속 경제학자 세 명이 불평등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저자들은 10여년 전부터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고, IMF 내에서 ‘반성적 성찰’의 목소리를 꾸준히 냈던 학자들이다. 과도하지만 않다면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 나아가 이런 정책이 추진돼야 성장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생각의힘·1만8000원〉

▲교사를 위한 교육학 강의 = 교육학의 주체가 되어 실천적 교육학을 모색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책이다. ‘교사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입시를 어떻게 바꾸어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한다. 또 시대의 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생들의 아픔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랑

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무생각·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과 배려의 모습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한다.

〈살림타·1만7000원〉

▲소금 지방산 열 = 요리사인 저자 사민 노스랏은 “소금, 지방, 산, 열이라는 네 가지 요소만 숙달하면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쓴맛을 최소화하고 단맛의 균형을 잡는 ‘소금’, 풍미를 강화하고 질감을 형성하는 ‘지방’, 음식의 균형을 잡는 ‘산’, 다양한 풍미와 질감의 변형을 일으키는 ‘열’ 등 음식을 보다 맛있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를 심도 있게 파헤친다.

〈세미콜론·3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신화로 만나는 세계 문명 = 인류 최초의 신화인 길가메시,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창세의 시작을 보여주는 삼황오제,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갠지스강의 신들까지. 수천 년을 살아남아 전승되어 온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세계 문명의 근원을 살펴보고, 메소포타미아-이집트-중국-인도 문명을 만나본다.

〈스폰북·1만2000원〉

▲학교 가기 싫은 선생님 = 새학기를 앞두고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 학교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커다란 걱정거리다. ‘선생님도 아이들과 다르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이 책은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또 신나고 재미있는 학교생활 에피소드도 담았다.

〈노란상상·1만3000원〉

▲여덟살 오지마 = 여덟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 학교에 가야하



는 나이이다. 보육의 공간에 있다가 교육의 공간으로 입장해야 하는 아이에게 처음 학교 가는 날은 긴장

되는 날이다. 입학식, 교실, 담임선생님, 급식, 강당, 운동장 등 처음 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온다. 책은 어떻게 해서든 일곱 살로 남고 싶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덟 살은 막고 싶은 주인공의 심리를 그렸다.

〈노란돼지·1만3000원〉

‘책 읽어주기’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이다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마크 로제 지음·유미연 옮김

‘책’이라면 한 페이지 넘기기도 어려운 18세 소년과 평생 책과 문학을 사랑해온 노인이 ‘책’과 ‘낭독’을 통해 우정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책이 출간됐다.

전 세계 서점과 도서관 등을 순회하며 낭독회를 열고 있는 직업적인 낭독가 마르크 로제의 첫번째 장편 소설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는 작가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저자는 27년간 세계 곳곳에서 책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고 유대를 맺으며 뛰어난 이야기 전달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는 “책은 혼자 읽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읽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책 읽어주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책

읽기를 통한 ‘접촉’과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작품의 배경은 프랑스 수레국화 노인요양원. 주인공 그레구아르는 80%가 합격하는 대학입학자격시험에도 떨어진 후 수레국화 요양원 주방보조로 취직한다. 어느날 음식을 배달하러 ‘28호실’에 들어선 그는 모두가 ‘책방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파키에씨를 만나게 된다. 지금은 햄버거 가게로 바뀌어버린 문학서점을 운영했던 그는 파킨슨병이 악화되자 가게를 정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책 3000권과 함께 요양원에 들어왔다.

은통 책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에 매일 드나들던 그레구아르는 조금씩 책과 친숙해지고, 파키에 할아버지는 그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그 즐거움을 타인과 나누는 방법을 알려준다. 바로 ‘낭독’이다.

녹내장이 악화돼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게 된 파키에 할아버지를 위해 책을 읽어주는 그레구아르의 낭독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옆방으로, 요양원 전체로 번져 나간다. 생의 마감 시간만을 기다리던 노인들은 일상의 기쁨을 되찾으며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직원들, 방문자들 모두가

행복해한다. ‘책과 인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몰려주고 싶어했던 파키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레구아르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그 마음이 요양원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다.

소설에서는 또 주인공들 뿐 아니라 요양원에 입주한 노인들의 사연들도 눈길을 끌며 그레구아르가 입주자의 임종 직전까지 함께 하며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나 파키에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책 속에서 벗어나 ‘몸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보 여행을 떠나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책’을 소재로 한 소설인 만큼, 학창시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레구아르에게 파키에 할아버지가 권한 셸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비롯해 기 드 모파상의 ‘목걸이’ ‘비벳망어리’,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책 런던, 파블로 네루마, 책 케루약, 장 주네,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문학동네·1만3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